

# 시민됨과 기부 : 노인과 비노인의 비교

2015년 12월 2일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문제제기

- 선행연구의 한계는 두 개의 남겨진 과제를 제안함
  - 개인적 동기가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로 발현되도록 이끄는 추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부는 경제력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지지되지 못하고 굴절되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장 이론과 아비투스 개념을 적용해 시민됨과 기부행위의 양태를 살펴보고, 시민됨과 기부행위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함
- 노인과 비노인 인구집단에서 시민됨과 기부행위의 양태, 시민됨과 기부행위 사이의 영향관계가 동일하게 재현되는가를 비교하고자 함

# 이론적 배경

- 기부에 대한 선행연구

- 기부를 주제로 한 그간의 연구는 ‘왜’와 ‘어떻게’를 중심으로 수렴됨. ‘왜’에 집중한 연구들은 기부의 내적, 외적 동기를 밝히는데 목적을 둠
- 한편 ‘어떻게’에 천착한 연구들은 기부행위의 양태, 즉 어떻게 기부하는가를 이해하려는 부류와 기부활성화, 즉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부류로 분리됨

- 기부에 대한 선행연구

- 기부의 내적 동기

- 이웃에 대한 동정심, 이타심은 기부를 포함한 자선행위의 결정요인으로 주목되어옴
    - 도덕적 의무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기부의사 및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침
    - 기부를 통한 행복감, 즉 죄의식의 완화, 좋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기부행동을 촉진함

# 이론적 배경

- 기부에 대한 선행연구

- 기부의 외적 동기

- 세제혜택을 포함한 기부정책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임 기부자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이 기부를 유도하는 정도는 상이함
    - 한 사회 또는 가족의 기부에 대한 문화 역시 기부의도나 기부행위를 결정함

# 이론적 배경

- 기부에 대한 선행연구

- 선행연구의 한계

- 개인적 동기를 사회맥락과 분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함
    - 개인적 동기를 중심으로 기부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는 기부행위가 사회 또는 국가 단위에서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회마다 다른 성격의 기부문화가 조형되는 이유를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론적 배경

- 습속(아비투스)으로서 기부
  - 일정한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지위를 향유하는 집단에게 사회경제적 지위에 조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암묵적으로 강제됨
  -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상징체계를 통해 개인에게 인식되며, 이를 수용한 개인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양태를 발전시킴
  - 이들 행동양태는 사회적 관계,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긍정적 환류를 야기하고, 강화됨



# 이론적 배경

- 습속(아비투스)으로서 기부
  - 습득된 행동양태는 사회화를 통해 세대를 거듭해 지속되고 한 사회의 문화로 고착됨
  - 특정 행동양태는 일부 계층만의 문화로 인식되기도 하며, 개인은 이들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자신을 다른 계층에 속한 개인과 구별 지으려 함
  - 사회적 상징체계를 통해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은 이를 자신의 문화로 내재화 함.

# 이론적 배경

- 습속(아비투스)으로서 기부
  - 사회화를 통해 기부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향되며 습속으로서 기부는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지속됨
  - 특히, 특정 계층은 기부를 자신의 계층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 또는 조건으로 내재화 함
  - 시민됨은 이기를 넘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며,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일형식인 기부는 시민계층의 습속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론적 배경

- 시민

- 홉스의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시민은 도시 거주라는 고전적 전제를 해제하고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존재로 변환됨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은 공민적 권리에 버리 해 국가를 상대로 정치, 경제, 사회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개인으로 정의됨
- 현대적 의미의 시민은 국가를 구성하며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함

# 이론적 배경

- 시민됨

- 시민됨은 자유권과 평등권, 정치적 권리, 그리고 사회적 권리에 대한 자의식과 이에 기반한 실천적 행위를 의미함
- 시민됨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나 원자화된 개인에 기반하지 않음. 오히려 시민됨은 관계로 구성된 공동체 내에서 발아하고 성장함
- 시민됨은 공동체에 부여되거나 내장된 선형적 조건이 아님. 시민으로 처우받고 시민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집단의 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성숙함

# 이론적 배경

- 시민됨

- 따라서 시민됨은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공동체 지향성을 내포함. 시민됨은 개인 또는 집단이 시민의 경계내로 편입되고 시민으로 인정됨을 궁극으로 하는 방어적 투쟁을 넘어설 것을 요구함
- 차별 및 억압대상에 대한 공감과 일체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구체화 되는 ‘확대된 자아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함

# 이론적 배경

- 시민됨의 요소

- 시민덕목

- “시민은 도덕적 신분이다”라는 바버의 사유는 시민됨은 기대되는 도덕적 준거가 존재함을 시사함
    - 시민을 이기를 넘어 공공성을 담지하는 덕을 갖춘 개인으로 설명한 루소의 정의는 시민됨의 덕목이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가늠케 함

# 이론적 배경

- 시민됨의 요소

- 시민참여

- 참여는 공론장의 논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를 시민으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시민 개념에서 부터 출현함
    - 확장된 시민됨은 주체성을 요구함. 즉 공적 결정에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 서는 것이 시민의 본질임. 특히 루소는 시민을 결정짓는 요소로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강조함

# 이론적 배경

- 시민됨의 요소

- 시민참여

- 자발적 결사는 시민됨의 조건이자 시민됨을 방증하는 지표임. 시민권과 시민덕목이 인식적 차원, 즉 시민됨의 영혼을 구성하며 시민참여는 외형화된 시민됨의 신체화임



-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 본 연구는 2011년 9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년 원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음
-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매년 이루어지며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를 묻는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분석자료

- 반복핵심 모듈은 매년 조사되며,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모듈은 세계사회조사프로그램에 가입된 45여개 회원국의 공동질문으로 이루어져있음
- East Asian Social Survey(EASS) 모듈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동 개발한 질문으로 구성되며 격년주기로 조사됨
- 특별주제 모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특별주제를 매년 바꾸어가며 조사함

- 분석자료

- 시민성과 기부에 관한 질문은 ISSP 모듈에 포함되며 2004년, 2011년, 2014년에 조사에 포함되었음
- 2014년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이나 공공에 미개방된 상태라 접근 가능한 최신 자료인 2011년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함

- 표본 및 자료수집

- KGSS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며 다단계지역집락표본 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표집함
- 자료는 200여명의 훈련된 유급면접원이 응답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함.
- 2011년 조사는 152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으며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남녀 1483명의 자료를 분석함

- 측정도구

- 시민권리

- 시민권리의식은 ISSP 모듈에서 시민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해 측정함.
    - 민주국가에서 개인이 지닌 다음의 권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물었으며,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함.

- 측정도구

- 시민권리

-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eigen value 가 3.50 인 하나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문항은 요인계수가 최소 0.52에서 최대 0.85로 추출된 공통요인에 성공적으로 적재됨
    -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시민권리의식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가 0.85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보임

# 연구방법

	요인1
적정생활수준유지	0.60
소수자권리보호	0.62
평등한 대우	0.77
정책에 여론을 반영	0.85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	0.85
시민불복종운동 참가	0.52
Eigen Value	3.50

- 측정도구

- 시민덕목

- 시민의 덕목은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세 개의 질문을 이용해 측정함. KGSS는 열 개의 질문을 통해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이들 열 개 문항은 세 개의 공통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측정도구

- 시민덕목

-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공통요인 중 시민의 책임에 관한 하나의 공통요인에 적재된 세 개의 문항을 이용해 시민덕목을 측정함
    -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시민덕목을 의미함 세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계수가 0.62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연구방법

## 측정도구

	요인1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0.82
이 세상은 책임감 있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0.71
사람들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0.34
Eigen Value	1.77

- 측정도구

- 시민참여

- 시민참여는 선거와 집단적 행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통해 측정함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서명운동, 거리시위, 민단체 후원 여부를 물어, 참여에 1점을, 비참여에 0점을 부여하는 평정방식으로 점수화 함

# 연구방법

- 측정도구
  - 시민참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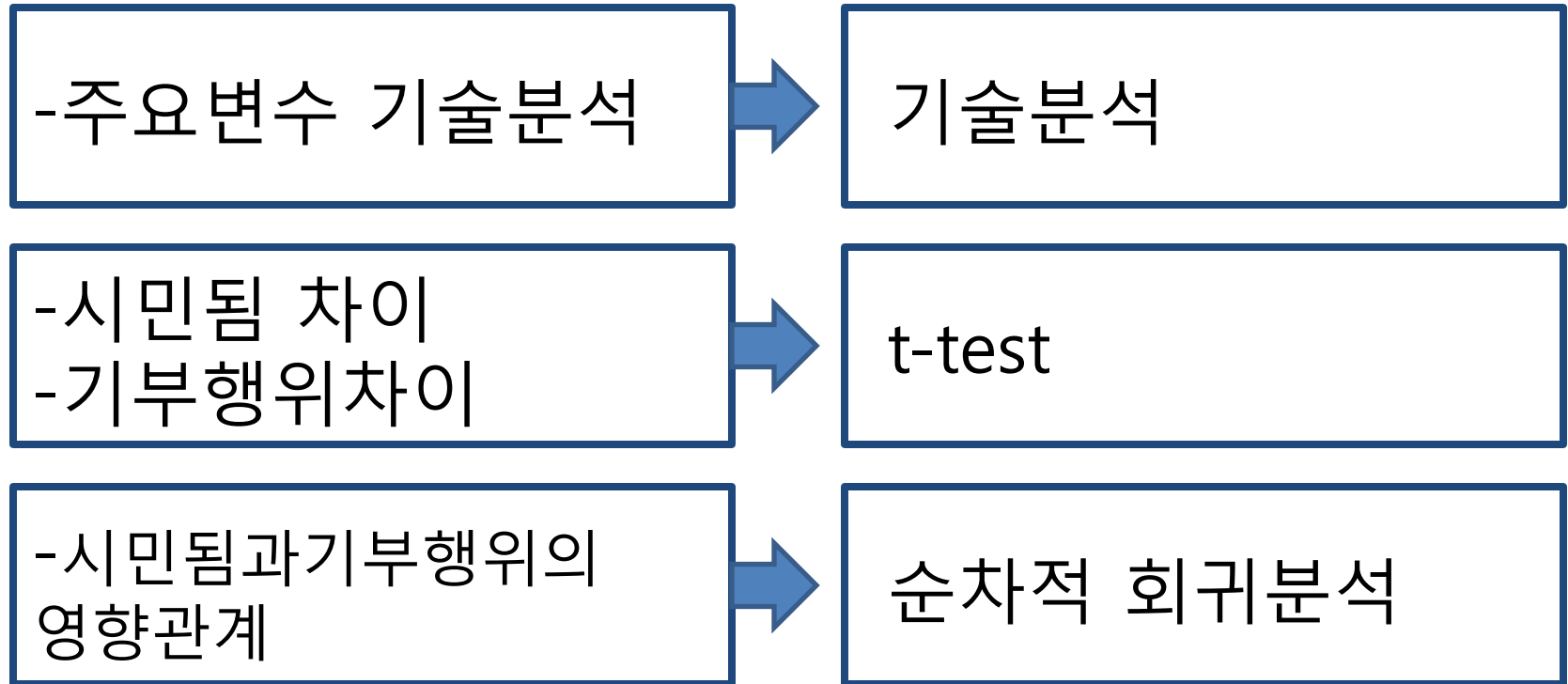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선거	참여	44.5(89)	55.1(185)	69.1(253)	78.3(195)	80.5(132)	77.2(95)	67.4(31)
	비참여	55.5(111)	44.9(151)	30.9(113)	21.7(54)	19.5(32)	22.8(28)	32.6(15)
서명	참여	42.5(85)	41.1(138)	41.8(153)	30.1(75)	26.8(44)	13.8(17)	8.7(4)
	비참여	57.5(115)	58.9(198)	58.2(213)	69.9(174)	73.2(120)	86.2(106)	91.3(42)
거리 시위	참여	4.5(9)	7.7(26)	8.7(32)	10.0(25)	6.1(10)	5.7(7)	6.5(3)
	비참여	95.5(191)	92.3(310)	91.3(334)	90.0(224)	93.9(154)	94.3(116)	93.5(43)
단체 후원	참여	3.5(7)	9.2(31)	9.0(33)	7.2(18)	3.0(5)	2.4(3)	0.0(0)
	비참여	96.5(193)	90.8(305)	91.0(333)	92.8(231)	97.0(159)	97.6(120)	100.0(46)

- 측정도구

- 기부행위

- 기부행위는 '나는 정부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선적 이유로 돈을 기부하곤 한다'의 한 문항을 이용해 측정함
    -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함

- 분석방법



# 분석대상자

- 1483 명 분석 대상자의 44.5%(n=661)는 남성, 55.5%(n=823)는 여성이 차지함
- 연령은 최소 20세에서 최대 94세로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46.9세로 나타남
- 20대가 13.5%(n=200), 30대가 22.6%(n=336), 40대가 24.7%(n=366), 50대가 16.8%(n=249), 60대가 11.1%(n=192), 70대가 8.3%(n=123), 80대 이상이 3.1%(n=46)로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룸

# 분석대상자

- 교육적 수준은 무학, 서당수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4%(n=208), 중학교 졸업이 7.8%(n=116), 고등학교 졸업이 29.1%(n=432),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49.1%(n=7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결혼상태는 기혼유배우자가 68.7%(n=102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별이 10.0%(n=148), 이혼이 3.4%(n=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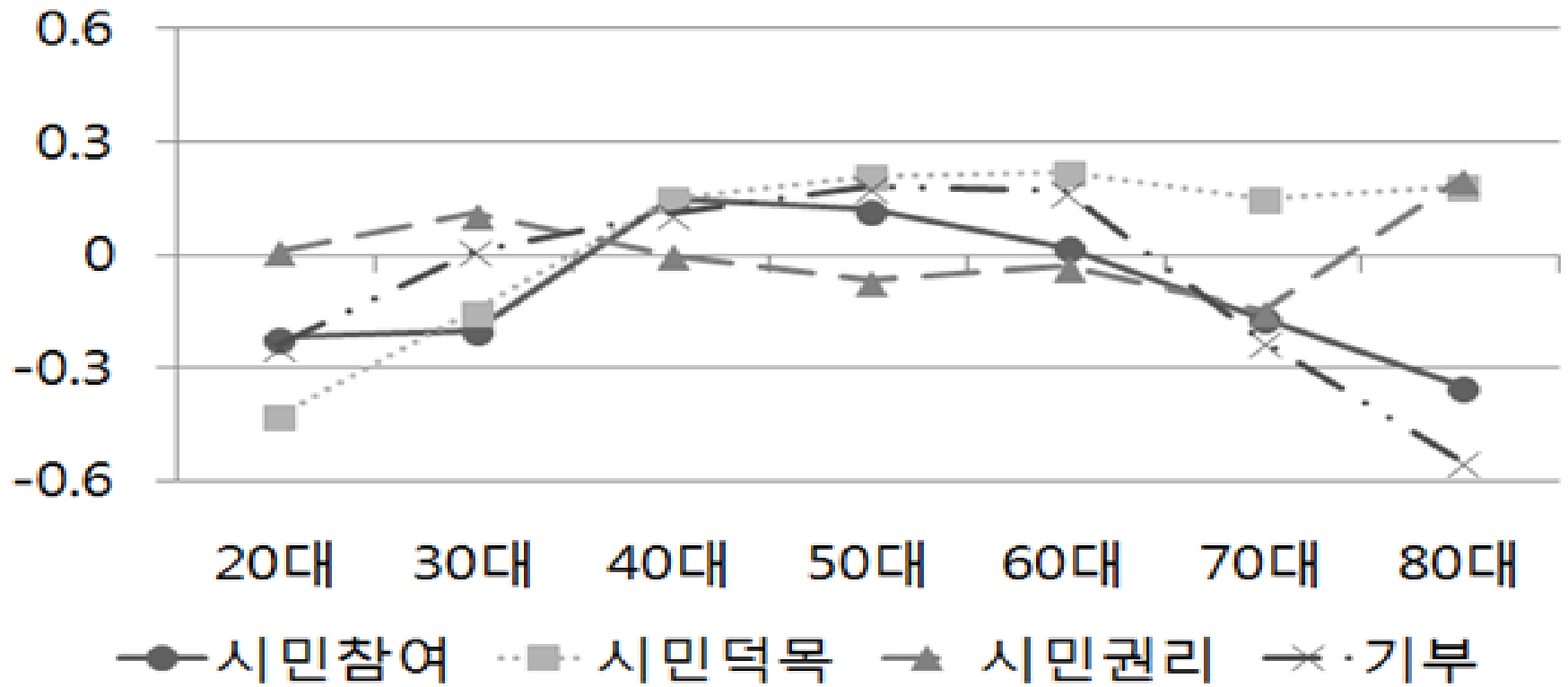


# 연구결과

##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M(SD)	최소값	최대값
시민덕목	1483	13.34(1.44)	8.00	15.00
시민권리	1433	34.46(6.66)	6.00	42.00
시민참여	1484	1.14(0.91)	0.00	4.00
기부행위	1483	3.37(1.01)	1.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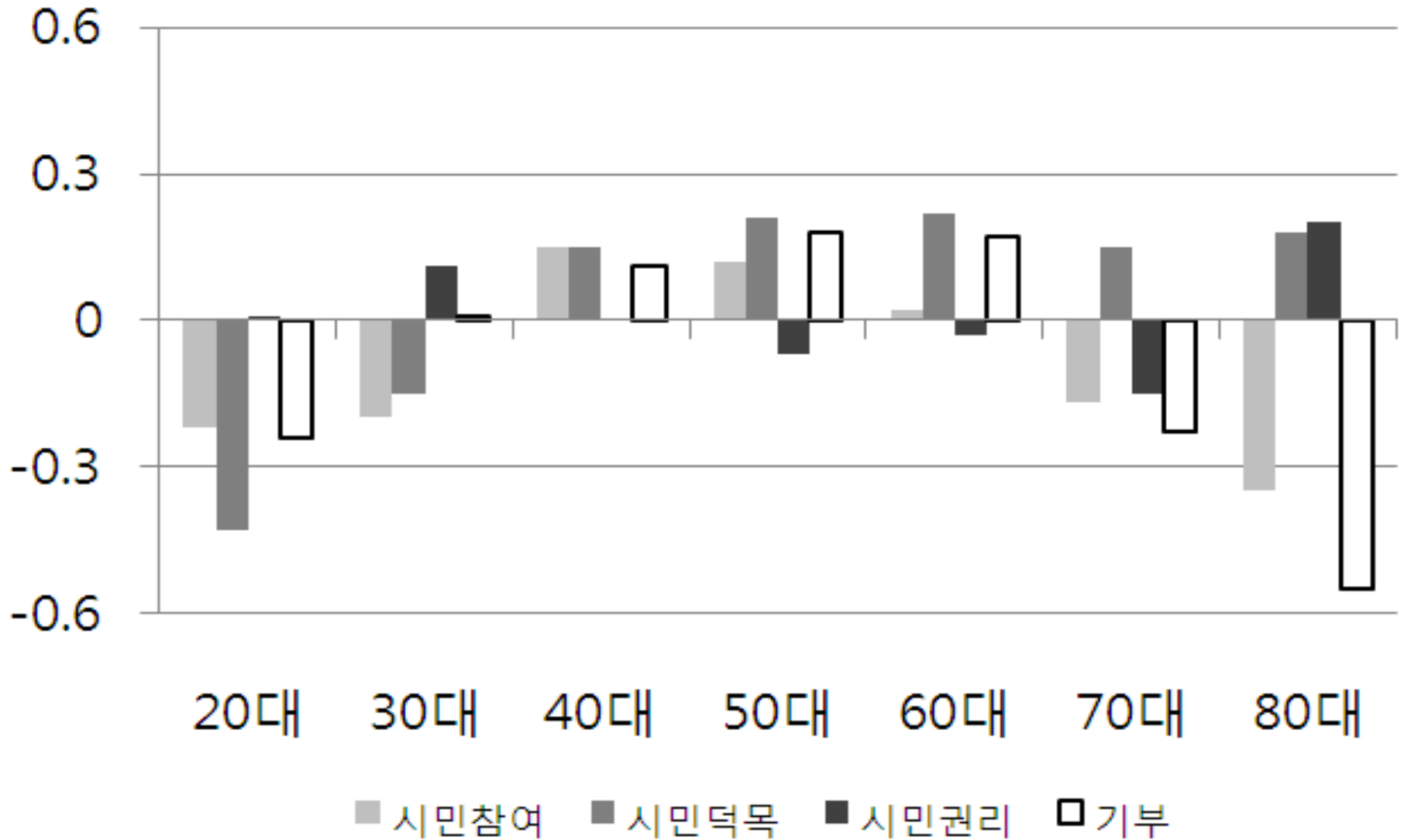
# 연구결과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시민덕목	12.67	13.09	13.53	13.62	13.64	13.54	13.58
시민권리	34.51	35.19	34.41	33.97	34.19	33.39	35.76
시민참여	0.95	1.13	1.29	1.26	1.16	0.99	0.83
기부	3.11	3.37	3.47	3.54	3.53	3.12	2.80

# 연구결과

## • 연령대별 시민됨 차원



# 연구결과

구분	집단(n)	M(sd)	t	p
시민덕목	비노인(1237)	13.25(1.47)	<b>-3.58</b>	.000
	노인(247)	13.62(1.41)		
시민권리	비노인(1237)	34.43(6.81)	0.23	.816
	노인(247)	34.31(6.04)		
시민참여	비노인(1237)	1.15(0.94)	<b>2.44</b>	.015
	노인(247)	1.02(0.73)		
기부	비노인(1237)	3.38(0.99)	<b>2.11</b>	.036
	노인(247)	3.22(1.12)		

# 연구결과

	연령	계층귀속	경제만족	이타심	사회신뢰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
연령	1							
계층귀속	0.07**	1						
경제만족	0.09***	-0.10***	1					
이타심	0.22***	0.00	-0.01	1				
사회신뢰	0.09***	0.20***	-0.07**	0.04	1			
시민덕목	0.22***	-0.01	-0.01	0.40***	-0.03	1		
시민권리	-0.02	0.01	0.02	0.17***	-0.01	0.25***	1	
시민참여	0.04	-0.00	-0.05*	0.15***	0.00	0.24***	0.13***	1

$p < 0.05$  \*  $p < 0.01$  \*\*  $p < 0.001$  \*\*\*

# 연구결과

	b	β	t	vif	b	β	t	vif
(상수)	2.81		16.58***		1.10		4.09***	
연령	0.00	0.06	2.03*	1.44	0.00	0.05	1.55	1.46
대졸더미	0.31	0.15	5.18***	1.40	0.25	0.13	4.34***	1.41
계층귀속	-0.02	-0.09	-3.31***	1.06	-0.01	-0.06	-2.31*	1.04
경제만족	0.12	0.14	5.45***	1.03	0.11	0.12	4.87***	1.05
이타심	0.16	0.14	5.52***	1.06	0.04	0.03	1.28	1.24
사회신뢰	0.00	0.02	0.91	1.05	0.00	0.01	0.52	1.02
남성더미	-0.02	-0.01	-0.45	1.03	-0.10	-0.05	-1.92	1.03
시민덕목					0.15	0.21	7.42***	1.33
시민권리					0.00	0.02	0.77	1.10
시민참여					0.17	0.15	5.94***	1.10
F(df)	15.08***(7,1475)				22.34***(10,1421)			
R <sup>2</sup>	0.07				0.14			

$p < .05$  \*  $p < .01$  \*\*  $p < .001$  \*\*\*

# 연구결과

	b	$\beta$	t	vif	b	$\beta$	t	vif
(상수)	6.58		7.27***		4.30		3.82***	
연령	-0.04	-0.23	-3.82***	1.05	-0.04	-0.24	-3.70***	1.07
대졸더미	0.35	0.10	1.60	1.14	0.23	0.07	1.07	1.15
계층귀속	-0.01	-0.18	-2.93***	1.05	-0.02	-0.16	-2.58**	1.02
경제만족	0.21	0.22	3.62***	1.02	0.19	-0.21	3.22**	1.07
이타심	0.08	0.06	1.06	1.01	-0.02	-0.02	-0.28	1.25
사회신뢰	0.00	0.04	0.64	1.06	-0.00	-0.01	-0.09	1.03
남성더미	0.12	0.05	0.84	1.18	-0.02	-0.01	-0.14	1.19
시민덕목					0.17	0.21	2.86**	1.37
시민권리					0.01	0.07	1.04	1.13
시민참여					0.06	0.04	0.67	1.14
F(df)	7.02*** (7,238)				5.22*** (10,209)			
R <sup>2</sup>	0.17				0.20			

$p < .05$  \*  $p < .01$  \*\*  $p < .001$  \*\*\*

# 연구결과

- 시민권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기부는 60대까지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급속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층에서 시민참여와 시민덕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저항정신이 시민됨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아성찰이 요구된다는 논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음



# 연구결과

- 노인은 비노인보다 시민덕목은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시민참여와 기부는 낮은 수준을 보임 노인의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자유로운 외부활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시민됨, 특히 시민덕목과 시민참여는 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시민덕목은 기부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검증됨.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시민덕목은 기부를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드러남

# 연구결과

- 기부를 개인의 경제적 상황, 이타적 행위에 따른 자위감 등의 보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 조망한 선행연구의 이해와 달리 기부는 시민공동체의 문화로 내재화된 아비투스임을 시사함
-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 등 시민됨이 모형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와 계층귀속감의 영향력이 감소한 결과는 기부와 관련된 미시적 차원의 속성이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시민공동체라는 장이 미시적 차원 즉 하부의 속성을 굴절하기 때문이라는 장의 이론을 빌어 설명해 볼 수 있음

# 참고문헌

김동춘, 0000.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37, 5-46

박의경, 2011. “대중에서 시민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5), 81-100

서관모, 2001. “한국의 시민사회 담론의 문제점들”. 사회과학연구, 18(2),  
99-117

송호근, . 시민의 탄생

이동수, 0000.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42(2), 한국정치학회보, 5-23

이용규 송용찬, 2012.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9, 189-211

장은주, 정상호, 신진욱, 이병천, 이양수, 조흥식, 박영선, 정태석, 홍윤기,  
전상직, 이담인, 2014. “시민의 탄생과 진화”. 시민과 세계, 24, 276-310

정병기, 0000,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성”, 14-31

홍윤기, 2002. “시민민주주의론”, 시민과 사회, 1, 15-37